창간정신
1. 영생대도의 실천
2. 영생학의 보급
3.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694호 The Seungni Shinmun 2015년 9월 1일 화요일

힘들고 어려울 때 구세주께서 제시한 비전을 생각하자

"천국은 하나님께서 발하는 빛을 받아서 사는 세상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바로 생각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개·돼지와 같은 동물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목표 없이 살고 있고, 설령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신(一身)의 안녕과 쾌락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개탄할 일이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 스승이 없고, 보고 배울 사표(師表)가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이 한 몸을 희생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고,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혼신을 다해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천국에서는 구세주가 주시는 감로(사진속 빛)만 먹고 살게 된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진정한 승리제단 교인들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막연한 개념의 용어가 아니다. 하나님이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승리제단 교인들은 인류를 모두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기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민족의 앞날을 가로막는 영적 세력과 쉼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마귀와의 싸움, 우리를 가로막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다. 마귀의 본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마음 속에 들어와 '나라는 의식'으로 똬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싸워서 이긴 줄 알고 방심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새 다시 자신의 마음을 점령해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마귀이다.

구세주께서는 영생의 역사는 천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두고 하는 머나먼 여정이기 때문에 종종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천 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이다. 성경 상의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기 때문에 천 년을 못 채워서 죽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천 년이라는 것이다. 물론 감로(甘露)를 받아 먹어야 천 년을 살 수 있지 감로가 없이는 고작 백 년조차 살기 어렵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 눈앞에 전개될 천국을 그려보자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구세주를 따라서 가야만 하는 승리제단 교인들은 자칫하면 낙심(落心)하기 쉽다. 신앙이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기복이 있기 때문이다. 올라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시기도 있다. 잘 나가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시절도 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비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비전이란 장래 이루어질 상황을 눈으로 보듯이 그려보는 것을 의미한다.

구세주께서는 장래 구세주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빛이 발하게 되면 모든 마귀가 소멸(消滅)되게 되어 인류에게 영생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또한 그 빛을 받게 되면 언제는 기뻤다가 언제는 슬퍼지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상대성의 세계는 없어지고, 영원한 기쁨과 희열이 솟아나, 항상 웃음이 그치지 않는 절대적 기쁨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그곳은 글자 그대로 천국이라 지금과 같이 썩을 양식을 먹지 않고 살게 되며, 온 우주를 중성자광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불사(不死)의 비행체가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 천국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황홀한 세계인가!

구세주께서 제시한 비전을 지금 떠올리는 순간 당신은 마음의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을 것이다.*

김중천 기자

구세주가 제시한 천국의 3단계

시온성에서 각 나라 제왕을 뽑아서 보내 천하를 다스리게 된다

복숭아로 유명했던 부천시는 앞으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길지(吉地)중의 길지다

지금까지 천국이 없었다. 왜냐하면 구세주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 구세주가 오셔야 천국이 건설된다.

천국은 3종류가 있다.

첫째는 마음의 천국이다. 마음의 천국을 건설하려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가능하다.

둘째는 시온성 지상천국이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천국(세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전 천 년 동안 지상에 건설되는 중간단계의 천국을 말한다. 구세주께서는 소사를 중심으로 사방 30리에 금강석으로 시온성을 건설한다고 예언하셨다.

세 번째 천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이다. 이것은 궁극적인 천국으로서 이때가 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변화되는데 의인은 빛으로 변하여 영생을 하지만 죄인은 영원토록 뜨거운 불속에서 죽지도 않고 펄펄 뛰는 벌을 받는다. 즉 우주 전체가 의인에게는 천국이 되는 것이요, 죄인에게는 지옥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단계에 와 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간단한 방법은 구세주에게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에서 매일 매일 웃고 사는 것이다.

마음의 천국을 이룬 후에는 구세주가 계시는 시온성 지상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소사를 중심으로 사방 30리 되는 궁전은 영생할 후보자들만 들어가는 세계이다. 그곳에서 구세주는 각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승리제단 식구들 중 각 나라의 왕을 뽑아서 보내게 되어 있다(2000. 10.31말씀 중). 그래서 구원 얻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2003. 1.1 말씀 중에서). 얼마 안 남았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65)

"의인을 조금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각의 물질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빨리 죽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만물이 파멸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만물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화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인을 조금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세상이 죽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빨리 바뀌는 것이다.*

구도의 길

잠언 4장 23절에 대하여

생명의 뿌리가 마음이므로 영생의 확신을 지금 갖는 순간 영생이 가능해진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앞뒤가 바뀐 듯 보인다. 즉 생명이 마음의 근원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근원이 곧 뿌리이므로 생명의 뿌리가 마음이라는 것이다. 즉 마음이 있어야 생명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연장될 수 있고 또 감소될 수 있다는 뜻이 들어 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강할 때 생명력도 강해지고, 반대로 마음이 약해지면 생명도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불가(佛家)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다. 심즉불(心卽佛) 즉 마음이 부처라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는 석가세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어 성불(成佛)한 존재이므로 쉽게 말하면 신(神)을 이르는 말이다. 심즉불을 환원해서 말하면 부처는 곧 신이므로 마음이 신이라는 말이 된다. 부처는 내 마음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자 신이다.

따라서 마음을 잘 쓰면 생명력이 늘어나게 되고, 마음을 잘못 쓰면 생명력이 줄어들게 된다. 죽을 사람들은 영생의 확신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영생할 사람들은 영생의 확신 가운데서 산다. 이것은 마음먹는 대로 된다는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아직까지 영생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영생의 확신을 가져라. 마음먹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는가. 당신이 영생의 확신을 지금 갖는 순간 영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